

## 한국 · 일본 도시노인의 주관적 건강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bjective health and life quality of Korean & Japanese senior citizens living in the urban environment

이 미 란

고신대학교

Lee mi-ran

Kosin University

### 요약

한국과 일본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사하며, 근접한 국가이다. 특히, 두나라는 공통적으로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매우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국가적으로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인접한 두 국가의 다양한 고령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모색과 초고령 한국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문제를 앞서 경험한 일본의 시사점을 통하여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두 국가에서 각각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고령자봉사센터 등을 통하여 양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조사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고령사회는〈얼마나 오래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느냐〉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행복과 존엄의 가치에 입각하여 미래사회의 성장잠재력, 세대간의 조화, 성공적 노화적응에 준비하고자 한다.

### I. 서론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인접한 국가로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라는 중요한 사회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2002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인구대비 7.2%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재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며, 최장수국가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두 국가에서는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비한 해법들이 각 분야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면서 노년 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노년기 삶의 질 과 만족도가 매우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화와 질병으로 건강하지 않은 노인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년기 건강성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의 정부는 재가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의 다수 인구집단으로 급부상되고 있는 고령 노인들은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하여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노후준비가 부족하며 국가에서도 개인의 경제적 문제 등을 완벽히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대부분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노인연령층의 확대로 각 계층별 라이프스타일, 소득수준의 차이, 생활욕구등이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대여명이 30년 이상으로 더욱 늘어나게 되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므로 향후 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경우, 현재 시점의 노인들 보다는 비교적 준비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노년기는 수명연장으로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이 노쇠한 것이 아니라, 제 2의 혹은 제3의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누리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노년,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고령자의 건강수준과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도시 노인들이 자각하는 주관적 건강성과 노년기 삶의 질에 관하여 분석 정리함으로써 한일 초고령 사회에 요구되는 고령기 대책의 일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로 작성하여 한국노인들에게 조사 실시한 설문지를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일본대학의 한국교수가 일본어로 번역하고, 다른 일본교수가 역번역하는 방식으로 두 나라 간의 언어와 문화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시키고자 하였다. 한국에서의 연구대상은 2011년 3월 B시 지역에 거주하며, 복지관 노인대학

등에서 설문지를 읽고 듣고 대답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훈련을 받은 연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 방식의 설문 조사이며, 개별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20분~50분정도였다. 총 700개의 설문지 가운데 최종 603개를 분석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2012년 3월 D시 시니어 클럽 연합회, 자원 봉사센터 등에서 스스로 설문에 응답 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총 410개 가운데 최종 267가 분석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Ⅲ. 결론 및 논의

한국과 일본은 타 국가와는 달리 지속적인 고령화율과 이례적인 고령화속도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른 나라의 상황 및 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발견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공통적으로 75~84세 후기 노인집단이 각각 46.4%, 5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한일 두 국가 모두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여성 노인의 비율이 61.2%와 66%로 남성노인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신체건강성에서 한국노인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자립능력이 감소하였으나, 일본노인은 85세 이상의 초고령 집단에서도 자립적인 건강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점을 보였다. 또한, 주관적 심리건강성과 경제적인 부담감에서도 한국노인은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일본 노인들은 긍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이 한국노인은 일본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조사 대상자의 노인대부분은 시니어 클럽이나 지역 봉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이며, 적극적이고 자립적인 노인들이므로,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특히 한국노인 자살률은 일본과 미국의 4~5배로 알려져 있다. 의식의 차이와 사회 문화적 배경도 감안하면서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분석 관점에서 고령기 대책과 연구가 요구된다.

또, 고령노인의 경제적 보장과 사회 참여에 관하여 보면 일본은 노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연금으로 고령기를 보내고 있다<sup>1)</sup>. 한국에서는 1988년에 국민 연금법이 시행되고, 연금 지급은 2008년 이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성숙한 상황에 머물고 있으며, 가족의 경제적 부양부담으로 노년기의 삶이 유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년기를 풍부하게 살기 위한 사회 참여와 생활에 대한 경제적 보장과 주체적 자립생활 의식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sup>2)</sup>.

미래 가족의 변화와 대체가족과의 새로운 연결에 대하여 모색해 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도 핵가족으로, 싱글

또는 부부세대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지금의 노인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고령기를 사는 후기노인들의 동향을 감안한 가족 정책이 사실상 더 중요할 것이다.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기본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가장 밀접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차이점이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시아 문화권으로 비교적 유사성이 많은 한국과 일본의 노인비교 연구로서, 실제 노년기의 생활과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 방법, 표집 등에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 신뢰성 등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령 사회의 대응과제 및 노년기의 유사점, 차이점, 융합성 등에서는 제안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 ■ 참고 문헌 ■

- [1] 소국 히데오, “일본, 한국, 대만의 사회적 개호시스템과 비공식 지원에 관한 비교 연구”, 칸사이복지 대학, 지역 사회복지연구소, 2012.
- [2] 이미란, “노인의 건강성과 자아통합감의 영향경로에서 가족지지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10), pp.280-290, 2012.